

인도 : 이영제 목사

목	도	다	같	이
기	원	인	도	자
개	회	송 27장	다	같	이
교	독	문 34번	다	같	이
신	앙	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318장	다	같	이
기	도	이	창	걸
성	경	봉독 벧전2:18-25	다	같	이
특	송			
설	교 예수님은 누구 신가?	이	영	제
		(14. 나의 감독이신 예수님)	목	사	
찬	송 463장	다	같	이
현	금	다	같	이
봉	헌	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송	영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다	같	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축	도	인	도	자

지난 설교제목 : 길, 주, 생명, 진리, 부활, 생명의 떡, 흠과 신로, 왕, 돌는 해, 신랑, 산돌, 반석, 영

주앙교회 5대 실천강령

- ◎ 24시간 쉬지 않는 릴레이 기도로 성도 자신이 성령받고 교우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한다.
- ◎ 본 교우는 모두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고 예배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 ◎ 모든 교회재정(십일조, 감사, 선교헌금 등)의 지출은 선교비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로 선교의 기쁨을 마련하여 오는 세대에게 복음과 선교정신을 물려준다.
- ◎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운영한다.

주앙교회 24시간 기도

■ 기도 참여자 ■

매일1시간 : 오전6시(차영숙) / 오후1시(이영제)
6시(김효선) 유동(이창걸)

■ 기도 제목 ■

○ 주앙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이 하루속히 완성되도록
교회의 파송선교사(김형주, 정00)님을 위해서
중국의 00교회와 리00전도사님을 위해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피아노 반주자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앙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의 축복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 이영제 목사님을 위한 기도제목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넘치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해서
인도차이나선교대회(11월 24-27일 캄보디아 씬리압)에 특강

○ KCM을 위한 기도제목
인터넷을 전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KCM 파송 및 협력선교사님을 위해서
멀티미디어팀이 잘 운영되도록
세계선교정보연구원 모임이 잘 활성화 되도록

○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세계의 한국선교사님들의 영, 육 간의 건강을 위하여
사단의 방해가 물러가며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아직까지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국내의 선교단체들을 위하여

○ 민족을 위한 기도제목
민족 회개와 종교통합주의, 미신, 무속 타파를 위해서
영적분별 능력과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한국경제회복을 위해서와 실업자, 근로자 문제를 위해서
빈부격차 해소와 경제윤리 회복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식량난과 핵 포기를 위해서

○ 가정을 위한 기도제목
부부관계가 회복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가정폭력이 사라지고 가출과 탈선이 사라지도록

주일오후 2시에배 / 히브리서 주석강해

이영제 목사가 직접 연구한 히브리서 주석자료를 기초로 강해설교 합니다.

히 10:19-25 예수의 피로 힘입음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 담력” parrhsivan (페르레시안) “ 숨김없이 말함, 솔직함, 확신” 으로 “ 예수의 피를 힘입어” ejn(엔) “ ...안에” 로 ‘ 예수의 피안에서, 예수의 피로만’ 일년에 한번씩 대제사장만 들어 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20절 **새롭고 산 길ियो 취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 새롭고” provsfaton(프로스 파토스)는 성경 중에서 본 절에서만 기록된 것으로 ‘ 최근에 다시 만들어진’ 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어진 “ 산” zw’san(조산) “ 살아있는” 길이라는 뜻이 있다.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출29:21, 레8:30의 제사장들이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되는 예식을 연상케 한다. “ 맑은 물” u{dati kaqarw/(취다티 카다로)는 70인역(LXX)에서는 정결 의식에 사용하는 물을 가리킨다(민5:17, 겔36:25). 구약시대에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으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내면의 깨끗함을 말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 참 마음” ajlhqinh" kardiva" (알레디네스 칼디아스)의 “ 참” (ajlhqinh")은 8:2에서 사용한 것과 같으며,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 내 판단이 참되니” (요8:16), “ 내가 참 포도나무요” (요15:1)라고 사용하였다.

prosercwmeqa(프로셀코메다) “ 가까이 가자, 나아가자” 는 속죄의식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상의 성소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가정된 것이지만 그때와 같이 현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23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 미쁘시니” pisto;“(피스토스) “ 충실한, 신실한” 이며, “ 우리가 믿는 도리의” katevcwmn th;n oJmologivan th“(카테코멘 텐 호몰로기안 테스) 문자적으로는 “ 우리가 한 고백” 이다. oJmologivan(호몰로기안)은 “ 인정, 고백, 동의” 를 뜻한다. 본 절을 다시 번역하면 [또 우리가 믿는 분은 충성스러우시며 우리가 고백한 분으로 확고부동하게 붙잡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에게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권면 하신다. 하나님의 “ 사랑” ajgavph(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것을 말하고 “ 격려하며” paroxusmo;n(파록쉴스모스)는 싸울 때 화가 나서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행15:39),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에도 자기 싫어서 화가 나면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 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 보이며 “ 폐하는” ejgkatalaiponte“(엔카탈레이폰 테스) “ 뒤에 남겨두다, 버리다” 로 ‘ 나중에 모이자’ 고 하거나 ‘ 모임 필요가 없다’ 는 생각으로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 굳어지고 있음을 현재시상으로 사용해 저자가 기록할 당시 이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영제 목사
주앙교회 담임
영유신학교의 대표

뉴질랜드의 양

뉴질랜드의 양은 겨울이 오기 전, 늦은 가을에 털을 깎는다.

이것을 본 외지 사람들은 이상히 여긴다.

겨울이 오면 잘 길러진 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겨울이 되기 전에 털을 깎아준 양은 추위에

견디는 습관이 길러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추위가 오면 이겨내는데 털을 깎지 않은 양은

자신의 털만 믿고 있다가 추위가 오면 견디지 못하고

얼어죽는 양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털을 깎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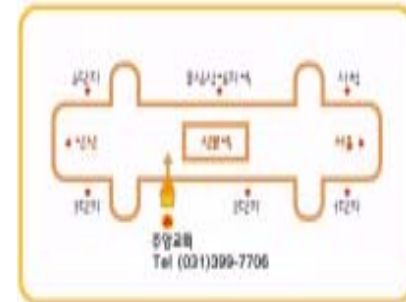
주앙교회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김형주 선교사 / 필리핀 정형구 선교사
베트남 정00 선생 / 중국 리00 전도사 / 인도 초띠옥이 자매
파키스탄 정00 선교사 / 미국 김능수 전도사

• 예배시간 안내 •

주일 예배	오전 11시
주일 오후(성경 강해)	오후 2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수요 예배	오후 7:30분
금요 심야기도회	오후 9시

• 주앙교회를 찾아오시는 길 •





제목 : 예수님은 누구 신가?

(13. 나의 영이신 예수님) / 본문 : 고후3:12-18

오늘 본문에 바울은 “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 (고후 3:12)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소망은 앞의 7-10절을 말한 것입니다. “ 구약의 모세를 따르던 사람은 단순히 죄를 알려주는 직분이었습니다. 이 없어질 직분이 영광스러웠다면 사람을 의롭게 하는 영원한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담대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담대히 증거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 씩어질 것을 위해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위해서 어찌 열심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바울은 이러한 심정으로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광채는 유한한 것이었습니다.

“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같이 아니하노라 ” (고후3:13) 이 말씀은 출34:29-35절을 예로 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신과 모세를 비교한다기보다는 복음과 율법을 비교한 것입니다. 율법은 유한한 것이며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율법의 일꾼이었던 모세와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당하고 마음의 속박함이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할 것 같아 수건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건을 써야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수건이 마음을 덮고있었습니다.

“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 (고후3:14)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면 모세만 수건을 덮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수건을 덮어쓰고 있었던 것은 “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 서 그랬던 것입니다. 원어의 ‘ 완고(에포로테:ejpwrwvqh)’는 의학용어인 피부 경질이란 뜻입니다. 이 경질은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자리에 생기는 것으로 굳으면 원래 뼈보다 더 단단한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돌과 같이 무감각하고 굳어진 경질 같은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벗어집니다.

“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 (고후3:14)고 했습니다. 이 수건을 벗는 것은 율법의 한계성을 영원하게, 미완성적인 것은 온전하게 만드신 율법의 완성 자이신(마5:17-18, 롬10:4)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주(2003.9.28) 설교 요약

대한예수교장로회

주 앙 교 회

JOOANG PRESBYTERIAN CHURCH

표어

-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
-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 선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담임목사 이 영 제
Pastor Lee, Young Jae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3-3(제일프라자 5층 본당, 사무실 4층)
교 회 : (031)399-7706 선교회(KCM) : (031)399-7705
목사관 : (031)398-7702 핸드폰 018-213-7702
Homepage : <http://kcm.co.kr/church/> Email : webmaster@kcm.co.kr